

청소년 선정 제3회 국회의원 선풀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 선풀SNS기자단, 정갑운 이석현 등 선풀 실천 국회의원 선정



11월 18일,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에서 수상 국회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이재 국회의원, 황우여 국회의원, 전순옥 국회의원, 정갑운 국회의원, 민병철 선풀운동본부 이사장 (건국대학교 교수), 이석현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세번째줄 두번째부터 박수현 국회의원, 한동권 선풀포럼 회장, 이현성 국회의원, 이우현 국회의원, 안효대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선풀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전 국대 교수)는 11월 18일(수) 오후 6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전국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3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 및 제8회 선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선풀상 시상식에는 청소년이 선정한 선풀실천 국회의원으로 선풀상에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영우(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용태(새누리당, 서울 양천구),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 김율동(새누리당, 서울 송파구 병), 김준진(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부안군),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김희선(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시),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서장기(새누리당, 대구 북구 읍),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병),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 윤영석(새누리당, 경남 양산시),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갑), 이이재(새누리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이한삼(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에천군),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구갑),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 정의화(무소속, 부산 중구동구), 정진후(정의당, 비례),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흥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구을), 황우여(새누리당, 인천연수구) 국회의원이 선정되었고 선풀대상에는 정감운(새누리당, 울산 중구),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이 공동 선정되었다.

선풀 대상을 공동 수상한 정감운 의원은 "국회의원 선풀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이 상이 언어 품격을 높여 '성숙한 국회'가 만들 어지도록 더 노력하라는 체적으로 알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석현 의원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선정해 주신 것이라 더욱 뜻깊고 행복할까 느낀다. 항상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곧고 바른 말을 쓰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선풀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수고하십시오." 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95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풀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지난 1년 간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여야 국회의원 각 15명씩을 선발하였고 모니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수상 국회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선풀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전

국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순수한 눈으로 국회의원 선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어른들이 응원과 배려의 선풀을 실천하는 본보기로 보인다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회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3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은 (재)선풀재단 선풀운동본부, 국회선교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상기, 김춘진)가 공동 주최하고 선풀포럼 (회장 한동권), 전국 선교교사협의회, 전국 청소년 SNS 기자단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조은태 기자

민병철 교수, 중국 CCTV서 '선플운동' 알리다

사이버 폭력 예방 '선플운동' CCTV '대담' 통해 20일 중국 전역 전파

한국의 선풀운동이 새로운 한류가 되나.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전국 대 교수가 중국 CCTV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선플운동'에 대해 알려 한국의 건강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병철 교수는 지난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초청으로 저장성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인터넷 대회'에 참여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선플운동'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 모습은 CCTV 인기프로그램 '대담'을 통해 20일

중국 전역에 방송됐다.

7억명의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를 가진 중국에서 10일부터 18일 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는 사이버 범죄 연구와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07년 초 민 교수의 영어 수업을 듣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선풀운동이 현재 7000여 개의 학교와 단체에서 5만여 명이 참여는 인터넷문화운동으로 발전했다.

이후 지난 2008년과 2013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전국의 청소년들과 선풀 교사들이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올린 추모 선풀 1만 여개를 모아 만든 추모선풀집을 CCTV에 전달했다.

중국의 네이티즌들도 선풀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추모사이트를 개설하고 5만여 명의 중국 네이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혀오는 등 선풀운동을 통해 한중 민간 친선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대회에 참석한 민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암울 대신 응원과 배려의 선풀운동을 통해 긍정에너지 를 전파하고, 한중 네이티즌들이 선풀운동을 통해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는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6억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그를 따르는 26만 명의 중국인 팔로워를 대상으로 응원과 배려의 선풀운동을 전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네이티즌들과 실시간 선풀 토론회를 개최하여 '5700만명'이 선풀 관련 글을 읽는 등 많은 중국 네이티즌들로부터 선풀운동에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경 기자



민병철 교수가 중국 CCTV 대담에서 '선플운동'을 알리고 있다.

'안녕! 우리말 한마당'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수상

KBS 아나운서실이 기획해 방송 한 한글날 특집 '안녕! 우리말 한마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10월 9일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안녕! 우리말 한마당'은 지난 10월 9일 방송되었으며 아나운서들

이 직접 바른 우리말 전달자가 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방

송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바른 우리말 확산에 기여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원',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헤드폰 스피커 케이스 개발」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핸들 개발」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접목한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원',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MIRAE
TECHWIN

MIRAE
KOREA

“문득 떠오르는 선풀 한마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이석현 의원 (선플 大賞)



'아름다운 말 선풀상'은 들키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인데, 이러한 기분 좋고 따뜻한 삶을 제가 받게 돼서 절말 영광입니다.

저는 SNS를 세상과의 통로라고 생각 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다른 분들의 기운을 불돋우고 따뜻하게 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글들에는 응원의 댓글, 선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의 불신이 가장 많은 분야인 정치를 하고 그것도 국회의원이다보니 저에게는 악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먹으며 무더대로 무디어졌는데도 악플을 받을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그럴진대 예민하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청소년기라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청소년기의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아픈 상처로 평생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괴롭힌 것은 더 아픈 상처로 평생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악플은 남도 아파 하지만 나를 망치게 하는 양날의 칼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인생에서 청춘의 시기는 정말 친란한 시기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청춘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십시오.

악플이 아니라 선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의원 (선플 大賞)



도 합니다.

그 만큼 정치인의 언어품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국회법 제146조에서 모욕 등의 발언을 금하는 것이나,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인격과 쟁점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키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의 언어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바른 마음으로부터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정심정행(正心正行)'입니다. 정행(正行)에는 고운 말, 바른 말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심정행을 바탕으로 저는 국회부의장에 선출될 당시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부족하지만 나름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언어품격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욕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점점 사막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대 불교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오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등 입 안의 도끼는 결국 스스로를 내려친다"는 것을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물론, 청소년 여러분들도 새겨야 할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선풀상을 언어품격을 통한 '성숙한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선정해준 상이라 더욱 뜻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르고 고운 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의 공유와 넓어진 의사소통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 잇아가는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과 문득 떠오르면 미소를 짓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배려 없이 올린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었을 때, 그 상처와 고통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말을 한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진심어린 한마디, 배려 넘치는 한 줄의 글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뿌듯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소를 짓게 되는 기억들,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기억들을 많이 만들며 성장 하길 바랍니다. 따뜻한 기억, 자부심 있는 기억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뜻 깊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주신 선풀달기국민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395명의 전국 청소년 SNS 기자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김상훈 의원



지난 11월,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활 설레었습니다. 선풀 SNS 기자단 학생들이 국회 회의록을 읽으며 직접 선정했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흔히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과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은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국회의원의 언어는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 '선플상' 수상을 통해 저 역시 말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뜻 깊은 상을 주신 선풀 SNS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수석대변인직을 2년째 맡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변인은 모든

사안을 속지하고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과 부지런함으로 국민들께 사안을 잘 알려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정책과 방향을 잘 제시하고, 거친 말이나 어휘는 기급적 자체하면서 정부와 이당을 품격 있게 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잘 준비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입니다.

청소년이 선정한 '2015년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사) 선풀달기국민운동본부의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적능력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고학원적인 철학적, 과학적 사유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부로 들어내는 거의 전부이고 또한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특히 언어는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이 중요하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두고 평생을 벗하고 싶은 이들은 당연히 '아름답고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바른 언어를 쓰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바로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따라서 선풀인성신문을 구독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아름답고 선한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에 의해 상처받는 이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선풀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전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을동 의원



인터넷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예의 및 악플에 대한 문제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고 의견을 참고해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데,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을 만나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치기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선풀운동은 악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퍼트리는 씨앗이 되어, 지금도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프고 차기웠던 인터넷 공간이 밝고 따뜻한 곳으로 점차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선풀운동에 동참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의 친切, 격려, 희망의 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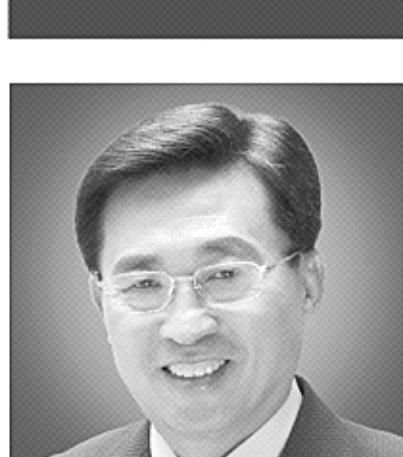
이번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선정해주셔서 '아름다운 말 선풀상'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만큼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있는 힘껏 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선풀씨앗이 인터넷 공간을 화합과 행복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더욱 훈훈해진 인터넷 공간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 를 대변하기 때문에 신중한 말과 언어 사용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과 언어 사용으로 모범적인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하는 목소리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표출하는 의견과 댓글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방해로 올바르지 못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글과 댓글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려와 사랑의 문화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다 인간미 넘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찬과 착한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시작”

김희선 의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초갑 국회 의원 김희선입니다.

2015년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에 저를 뽑아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1년간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뽑아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회가 밖에서는 정쟁의 장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일지도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을 알아봐주신 것이라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 선별정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선별정치위원회 간사로서 칭찬하고 공감하는 선별 운동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뿐 듯합니다.

듯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육체적 폭력보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 악플과 같은 언어폭력도 범죄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별운동 참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악플 대신 선한 말을 쓰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016년 원승이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한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표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에서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국민과 거제시민께 누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 상임위 등 수많은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정중한 언행과 자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전해져서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글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로부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최근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 칭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별문화 캠페인은 매우 뜻 깊고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 되길 바리며, 더 이상 악플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 올바른 언어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전국 청소년 선별 SNS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로부터 선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정말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치문화 조성에 앞장서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의 14%가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고, 19%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악성댓글, 욕설과 인신공격은 해가 길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악플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민병철 교수께서 시작하신 '선플달기운동'은 근거 없는 악플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대신 칭찬과 격려, 관심과 애정이 담긴 댓글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칭찬 한 마디, 착한 댓글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시작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올바른 언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



안녕하세요. 박수현 의원입니다.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와 관련된 첨예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곳이다 보니 때로는 속마음과는 다르게 가시 돋친 설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바른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막말'로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국민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리나는 청소년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악플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히하면서도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19대 국회 선별정치 위원회 위원장,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서상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별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주셨기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19대 국회를 처음 시작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다짐하며, 선별정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 몇 달 후면 20대 총

선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선별운동은 정치권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전 세계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보람도 크지만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큽니다.
앞으로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선플'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선플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 선별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욱 진실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선별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맡고 있는 안효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선정한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통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명성 뒤에 숨어서 무질서한 폭언과 욕설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소위 '악플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상대

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한 경우 죽음으로까지 물고 가는 이러한 '악플' 문화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선별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름다운 말 선별상' 수상을 계기로 저 또한 선별문화 혁신을 위해 보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 모두 2016년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이 되실 청소년 여러분이 선정한 상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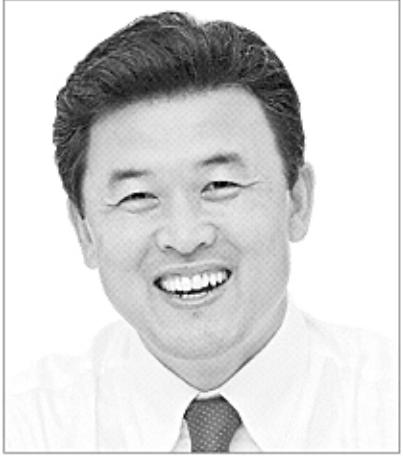
국회가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말, 기본 좋은 말을 실천하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곧고 바른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바른 말 사용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리적이고 품격있는 언어로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

윤영석 의원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청소년들이 써 오던 비속어, 은어 등은 항상 존재해 왔고,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며 동질감을 느꼈고 소통을 하였으며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언어가 일상의 대화 수단을 넘어 언어폭력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말 사용은 비단 청소년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운 말, 바른 말 사용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름다운 말 사용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입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불어 넣어 새로운 도약의 힘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 청소년이 선정한 ‘2015년 국회 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떠한 상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하여 사회를 통하고 분쟁과 이견을 조정합니다. 그만큼 정치인의 ‘발’은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심사숙고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말을 행함으로써 청소년으

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시는 삶이라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하리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욱 바른 정치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일상생활과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화되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동참하여 주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올미년 마음에 담은 큰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기쁨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재 의원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중 보람된 일을 하나 끝으라 한다면 바로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풀상’ 수상 일 것입니다.

39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풀 SNS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무선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개인 간 소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육설과 협박, 거친 언어 표기 자체가 이미 사이버 폭력으로 악플로 인한 폐해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들만 기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보 확산과 사생활 침해, 악플 등의 역할을 막고 건강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항상 솔선수범을 보이며 앞장서온 민병철 선풀달기운동본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들만 기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유해

이한성 의원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쓰고 계시는 선풀달기국민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을 비롯한 선풀 SNS기자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온라인 상 타인에 대한 비방,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의 의식수준이 기

술발전에 걸맞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인터넷 악명성에 기반 악성 댓글의 정화를 위해 힘쓰는 선풀운동본부의 선풀(sunful)달기 운동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글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참된 국회의원으로서 선풀운동본부,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햇살 가득한 (full of sunshine)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매단히 감사합니다.

인재근 의원



정치에서 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치 있는 말 한 마디가 절박한 위기를 넘기는 열쇠가 되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빠랑 끝에 물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국민을 대변해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이런 정책과 제도를 좋은 말로 잘 풀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진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에게 ‘아름다

운 말을 사용한다’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게 수여해준 ‘아름다운 말 선풀상’은 제가 받은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가장 많은 미래를 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행복과 희망의 씨앗이 깊고 블韧하게 뿌리내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옥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전순옥입니다. 제가 을 해 청소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했습니다.

9월과 10월, 두 달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을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더욱이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이 선정한 수상자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풀운동이 청소년들 주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해 고

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익산을 국회의원 전정희입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어갈 청소년들이 주신 삶의 기준에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전 날 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속담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국민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공익에 대한 사랑감이 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청소년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

풀상’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여야가 미주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때로는 대립하며 때로는 화합하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모시는 곳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다보니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 내내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밀연 중 피감자들에게 “말을 치거나 막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겸손히 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신 “부드럽고 상대를 존중하는 밀풀새를 가져라”라는 말을 떠올리며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품격은 얼굴 표정과 언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아름다운 말을 쓰고 상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을 쓰고 행동한다면 우리나라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말 기쁩니다. 청소년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는 말과 글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죽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처음 서울을 가봤을 정도로 제게 순창은 세상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 한번 자장면을 먹은 것이 유일한 외식이었을 정도로 학교를 가는 시간외에는 항상 가족 속에서 보냈고요.

저는 가장 똑똑하지도 않았고, 엄청 시간을 아껴가며 놀아 살았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편도 못 되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계으르고, 조금 어설플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강연을 하며 되돌아보니, 제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저의 장점은 약간은 무모한, 그러나 고집 있는 발랄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모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미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2%만 더 발랄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 힘들어서 늘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젊은 세대에게 원하는 것은 갈수록 많아지고 주어지는 보상은 턱 없이 적어지고 있죠. 물론 이러한 현실 자체를 바꿔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 하나,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작은 고집 하나는 지키는 발랄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발랄함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바꿀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상에 뽑히게 돼서 영광이고 정

선플재단, '2015 공익 창조앱 개발교육' 실시



10월 24일(토) 건국대에서 '2015 공익 창조앱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재)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학교 수)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여 10월 24일(토) 10시부터 17시까지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2015 공익 창조앱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2015 공익 창조앱 개발교육'은 창조적 아이디어 빌드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2015 공익 창조앱 공모전' 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앤비즈메이커 등을 교

육하고, 직접 어플을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본선심사는 11월 7일 (토) 오후 4시 선플재단 사무실에서 3분발표와 2분 질의응답으로 심사하여 발표됐다. 조종태 기자

홍영표 의원



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먼저 305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풀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착한 인터넷 댓글 선풀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이처럼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정치인이나 이전에 한사람의 어른으로 흐뭇함과 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국회 산

으로 힘쓰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주신 상이 더욱 값지게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언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평소 생활에서도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사회에 민연해 있는 잘못된 언어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긍정적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풀 SNS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안여고 선풀누리단 서울서 캠페인 전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지에서



부인 활동을 펼친 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탐방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 평화의 중요성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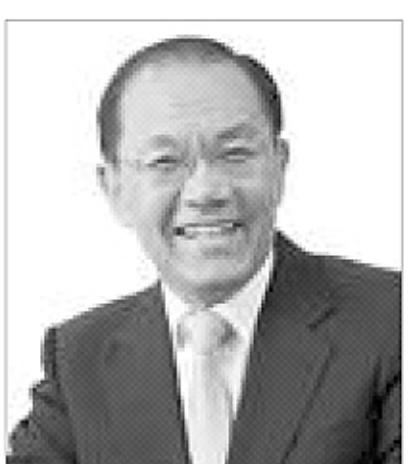
부안여자고등학교 선풀누리단 YES의 전국 선풀 캠페인은 학생들 스스로 선풀 캠페인을 준비하고 용돈을 모아서 버스를 대절하고 선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부안여자고등학교 선풀누리단 YES는 2011년 해남 땅끝 마을과 부산에서, 2012년 대전과 서울에서, 2013년 전도와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선풀운동의 중요성

을 적극 홍보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선플누리단 YES의 전국 선풀 캠페인은 애플의 폐해를 알리고 선풀을 널리 홍보하면서 지역의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다. 이경 기자

황우여 의원



먼저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賞' 수상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칭찬과 배려의 아름다운 언행을 솔선수범하라는 뜻으로 여겨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전전한 비판보다는 근거 없는 악플과 비방이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개인이 겪는 상처와 고통은 자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악플러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칭찬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플'을 통해 잘못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선풀운동은 인터넷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문화운동입니다. 저 역시 선풀운동의 취지를 받들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등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 '안녕! 우리말' 청소년 연극제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목, 이하 한국교총)가 주관하는 2015 연극제(이하 연극제)의 본선 시상식이 12월 23일(수)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극제는 '청소년의 바른 우리말 사용 및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전국 학교에 잘못된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바람

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창작극을 출품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예선과 본선의 열띤 경쟁 끝에 강릉여자고등학교 연극동아리 '꿈별'이 영예의 으뜸상(최우수상)을, 오혜영 교사는 지도 교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최우수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됐다.

2013년 12월부터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안녕! 우리말'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녕! 우리말'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극제는 청소년들이 풍랑 예술인 연극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한편, '문화융성'의 토대인 언어의 소중함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HJ Happy & Joy
HJ PnA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풍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합,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으로써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물을 지키는 가장 튼튼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사/업/분/야

UPS 설비구축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STS 설비구축

Generator 설비구축

Battery 설비구축

가스소방 설비구축

수변전 설비구축

전기공사

IDC 컨설팅 서비스

선플재단, 2015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활짝



12월 19일(토) 열린 2015 선플활동 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부 장관상 등 다양한 시상이 진행됐다.

선플지도자 부문 박현숙 청년지도자 교육부장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육해공군, 참모 총장상 등 수여… 내외빈 300여 명 참석

(사)선플운동본부와 (재)선플재단은 지난 12월 19일(토) 건국대학교 상하연구관에서 창의인성 및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2015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결과보고대회에서는 선플동영상 상영과 선플선언문 낭독에 이어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교수의 인사말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핫살 기득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고해서 출범한지가 8년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반인에서 공무원까지 많은 분들이 선플운동에 동참했고, 대학로에서 메르스 관련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으로 놀러오세요 캠페인도 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예방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열심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박현숙 청소년지도자의 우수활동시례 발표를 통해 "인성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1년에 32명이 선플활동을 시작해 5년째 활동하고 있다"며 "중점추진사항으로 의정부시청에

는 한광고등학교 강현모 학생, 수필부문 대상에는 대송중학교 정연정 학생 등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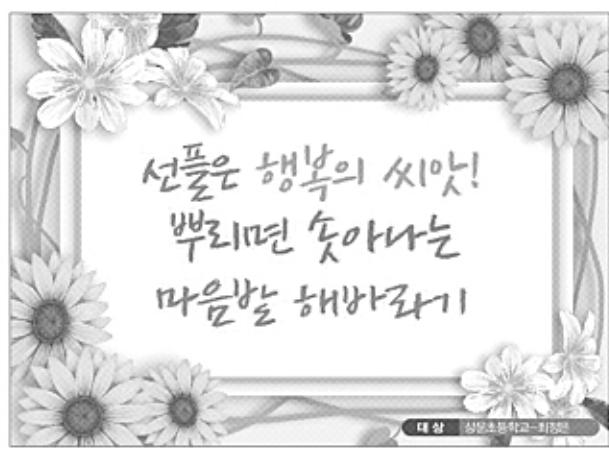
선플 지도자 부분에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박현숙 청소년지도자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김정은 학생은 육군참모총장 표장을, 유서영 학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표장을 수상하였고, 조세현, 황유정, 김은진, 구본우, 김진근 학생이 선플본부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은 국회선플정책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후원한 행사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동태 기자

선플은 행복의 씨앗! 뿌리면 솟아나는 마음밭 해바라기

〈표어부문 대상 : 상운초등학교 최정은〉



제목 : 나는 '악플러인가? 선플러인가?'

〈수필부문 대상 : 대송중학교 정연정〉

'너 대체 왜 사나?' 그냥 죽어라. 쿰 쿰' 처음 선플을 달기 위해 인터넷 댓글창을 보다가 눈에 띈 한마디. 이 한마디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정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댓글창에서 이 말은 심한 죽에 속하지도 못한다. 실제로 아무 인터넷 기사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없이 스크롤바를 내리다 보면 차마 이 글에 옮겨 적기 힘든 온갖 심한 욕설이 난무한다. 일명 '악플'. 악플은 인터넷 속 댓글창에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상처를 준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글을 달라고 만들어진 댓글창은, 댓글이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악용하여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SNS에서 익명의 악플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플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악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인터넷 댓글창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선플'이다.

선플의 정의는 '착한 인터넷 댓글'을 함축하는 말이다. 영문은 '햇살 가득한 (full of sunshine)'을 합친 것으로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다. 선플은 인터넷 익명성에 기반한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자는 취지로 민간단체인 선플운동본부가 만들었다고 한다. '악플'이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선플'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도 처음엔 '선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학교에서 선플운동본부의 선플기운동에 참여하라고 추천했을 때는 솔직히 '선플'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취지도 어렵게만 느껴졌다. 평소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잘 보지 않아서 '악플'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켜고 어떤 식으로 선플을 써야 할지 보려고 댓글창에 들어가서야 난 비로소 그 취지를 알게 되었다. 정말 악플이 라고 하기 어려운 심한 댓글들이 댓글창을 뒤덮고 있었다. 정말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심한 욕설, 인신공격, 성차별적인 발언, 성적인 농담, 장애인을 모욕하는 댓글, 낳아주신 부모님을 서로 욕하는 댓글,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악플'에 공감하고,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댓글을 도대체 왜 쓰고, 왜 공감하는 것일까? 댓글의 익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맘하니 많은 악플들을 읽고 또 읽다가 마침내 선플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수많은 악플 사이에 단 하나의 선플이었지만, 내 눈엔 암흑속에 끗이 자리로 지키는 듯 불 하나처럼 멋있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난 선플의 필요성을 느꼈다. 온갖 악플로 얼룩진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내가 선플을 달면, 등불이 모여 암흑을 비춰 물리치는 것처럼,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 희망을 품고 나는 선플을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선플은 글로 써서 달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쓰다 보니 아니었다. 선플은 마음으로 써야한다. 아무 의미없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글이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담긴 글이 진정한 선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조각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어야 진정한 '선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선플을 써 가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쓴 선플을 그 사람이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뿌듯하게 느껴졌다. 목록에 내가 단 선플갯수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내 자신이 느끼는 보람도 하나 둘 쌓여갔다. 이제 나에게 '선플달기운동'은 봄사시간만을 받는 활동이 아니라 나의 보람을 쌓아가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되었다. 주어진 기간동안 거의 매일, 꾸준히 선플을 쏘내려갔다. 10개, 50개, 100개, 150개, 드디어 선플을 달라고 학교에서 정해준 기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다. 내가 쓴 댓글목록엔 총 179개의 선플이 있었고, 난 마지막 180번째 선플을 쓰고 있었다. 그동안 써온 선플을 쭉 모아보았다. 믿겨지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선플을 달았다는 것이. 내가 180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쩌면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마지막 선플인만큼 더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길게 써 내려갔다. 마침내 마지막 선플을 등록하였다. 180. 다정하고 멋쟁이인 것은 그런 '악플'에 공감하고,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부문 대상 : 김해신안초등학교 신재민〉



Yes, new mother.

제목 : 21세기 콩쥐 팥쥐

〈UCC부문 대상 : 모현초등학교 정수현〉



블로그부문 대상 :

한광고등학교

강현모

주소

<http://blog.naver.com/gusah1354>

2016년 새해인사말,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서경덕 교수 이지애 문지애 아나운서의 '새해인사법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대신에 "건강한 한해 보내세요"로 올바른 표현을 하세요.

한국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온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이지애·문지애 아나운서가 진행한 '올바른 새해 인사법 동영상'이 지난 28일 유튜브에 올랐다.

올바른 한국어 홍보를 위해 이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강한 한 해 되세요'라는 인사는 틀린 표현"이라며 "이렇게 하면 들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데, 당신이 한 해가 되는 것으로 주술호응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새해 인사는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이며 미친가지로 '좋은 시간 되십시오'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밝혔다.

6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평상시 많이 사용하는 새해 인사말 중에 누리꾼이 많

이 들리는 맞춤법과 띠어쓰기 등을 아나운서인 이지애와 문지애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에서 '지난해'는 띄어 써야 하는지 불

여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표현이다.

신년 인사는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지난해'는

바로 작년을 의미하고, '지난 해'는 이전의 기간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설명절 잘 쇠심시오'에서 설은 '신

정'과 '구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신정

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

어지다 보니 일제 친체어라는 의견이 있

어 '영역설', '글역설'을 사용하는 것

더 낫다고 권하고 있다.

'쇠심시오'도 많이 착각하는 단어 중

하나로 명절이나 생일을 맞이해 지낼 때

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9월 정준하·장형돈

이 함께 제작한 '우리말 요리교실' 영상을

서 교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인사를 많이 주고받는 시점에서 바르고 올바른 우리말 인사를 서로 나눈다면 누리꾼들의 '우리말 사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고 아나운서와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이 우리말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문지애 아나운서도 "맞춤법은 우리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다"며 "그러나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한 번 더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누리꾼들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쇠심시오'가 아니라 '쇠다'를 쓰면 된다.

이번 영상은 지난 9월 정준하·장형돈

이 함께 제작한 '우리말 요리교실' 영상을



문지애 아나운서가 '올바른 새해 인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시작으로 서경석·이문석의 '우리말 속 옥에 티를 찾아라' 이후 3번째로, '안녕! 우리말' 전파운동의 하나로 제작됐다.

영상 제작은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서 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에 부활의 김태원과 함께 우리말 사랑 노래인 '노래처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경 기자

| 칼럼 | 최우성 / 전국선교사협의회 사무국장, 대부중학교 교사

왜 연탄, 번개탄, 베르테르 단어만 떠올리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생각날까?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서울대생 A군(19)이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를 글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핵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건 수자 색깔'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하였다.

또,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성 2명이 대전의 한 유원지 텐트 안에서 또 다른 남성 포함 총 3명이 연탄과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여 2명이 동반자살을 하였고, 1명은 눈이 떠져 일어나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를 남성들은 모두 30대 1명, 40대 2명이다.

2010년 이전의 자살 유형은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형이었지만, 요즘 주제는 대학생, 2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최근의 자살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생의 유

서가 일명 '베르테르 효과'로 인하여

모방 자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베르

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의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괴테의 소설 '젊은 베

르테르의 슬픔'이 나온 18세기 말 유럽

에서 극 중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 낸

모방 자살이 급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르테르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자살 사건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는 인터넷 자살관련사이트(카페, 블로그, SNS) 폐례의 심각성에 있다고 본다. 동반자살은 2기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일면식도 없는 인터넷으로 명절이나 생일을 맞이해 지낼 때

고 있는데, 첫째는 일면식도 없는 인터

넷으로 자살 정보를 공유하여 자살하는 유형. 둘째로 가족의 생활고나 지병으로 인한 동반자살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일면식도 없는 동반자살 유형은 자

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실행을 위하여 모의과정을 카토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공유하여 실행으

로 옮기는 유형이다. 특히, 최근 20~30

대 젊은 층에서의 동반자살, 30~40대 사

회초년·중년층에서의 동반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자살이 순쉽게 모의되고 실행되

는 주된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자살 카

페, 자살 블로그, SNS 등의 운영이 공

개가 아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

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높을 경우 사회·경제적 활동을 줄게 해 사회적 손실로 귀결되며, 높은 자살률이 저출산율과 결합될 경우 국가 파산 시나리오가 등장하며 자살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통계조사

에 의하면, 유명인 1명의 자살은 600여

명에게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

으로 확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심각성

을 들어내고 있는 자살의 원인으로 전

문가들은 우울증, 악성댓글, 음주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픔·질투·비관·자기비하·자기비난·식욕감퇴·수면장애·불면증과 일상생활의 보

람·흥미가 감소 또는 상실되고, 열정·활력이 감소되며 사고·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또한, 악성 댓글(惡性 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 reply, 간단히 악플)은 양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혐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울증과 악성댓글, 음주 등에 대한 대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자살고위험군의 파악을 통한 신속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살예방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나 일선학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인성교육, 언어순화교육, 우울증예방교육, 선불달기교육, 악플방지교육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위험군에 속한 예비자살자에 대한 상담·치료, 관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즉, 최근 일련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관계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자살관련 카페, 블로그, 사이트, SNS 등에 대하여 관련 업체에서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찰에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이 자살하지 않도록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경계를 하여야 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전종진 교수팀이 연예인 사망 소식과 자살률의 상관관계(2005~2011년)를 추적해 연구해 본 결과는 하루 평균 36.3명이던 자살자가

연예인 사망 후 45.5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속화 증가는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엄청난 사회적인 인생으로 자기통제능력, 자아정체성형성, 자아존중감 등이 부족하다. 이런 정의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대중 인기스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유명 스타의 자살은 일반인 600여명의 모방 자살을 유도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범죄를 야기한다. 유명 스타들은 자신의 자살이 타인에게도 자살을 유도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야야 한다. 유명 스타들의 직장에서는 생명존중교육, 인성교육을 실시적으로 실시하여 베르테르 현상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민 1인의 자살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자살자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우울증과 모방 자살의 충동을 동시에 안겨 줘 제 2의 자살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자살률 1위, 학교폭력, 성폭력, 성폭행, 일시위주의 풍토, 물질민족주의, 교육격차 증가, 빈곤층 증가 등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난제가 무수히 많다. 수많은 난제 중에서도 자살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생명 존중감을 키워주는 언어문화개선, 인성교육, 악플을 이기는 선플 등의 배려와 나눔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위를 하던 그 분위기를 기억한다. 나는 편집된 영상을 보며 분노했고 티아라를 욕하는 댓글들에 추천을 눌렀다.

모든 자료들은 화영 왕따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고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생각없이 댓글창에 쏟아냈다. 8월 13일 소연이 인터뷰로 '왕따설 증거자료들은 우리가 봐도 그럴싸하다'며 '그날(부도칸콘서트) 쉬었던 대로 뒤집어 있다'며 팀내 불화는 인정했지만 왕따설은 부정했다. 27일 화영이 트위터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왕따설이 둘고 상황이 악화된 사실로 만들어 아팠다'며 '서로 왜곡된 사실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티진요 카페 회원들은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왕따를 당했다고 말하거나 화영을 깡값하고 티아라에 대한 증오는 점점 공고해져갔다. 2015년 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티진요는 18만 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카페 대문 글귀는 '왕따 루머가 거짓이라도 탈퇴당한 화영은 생각해보셨나요?'로 바

뀌었다. 티아라의 국내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나는 정확한 진실에 대해서는 바는 없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말로는 진실을 요구하면서 점차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후로도 연예인들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는 여럿 개설됐다. 노진요(노후철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서진요(서태지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진요(아이유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증거들은 의혹에 대해 조작했고 넷상에서 의혹을 제기당한 연예인들은 증거가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을 때도 대체 누구를 위한 진실인 것이다. 진실을 삼키고 한 인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말이다. 이런 때 누군가 선플로서 위로를 하고 뒤이어 몇 명이 더 선플에 등을 하고 그렇게 선플이 더 확산 되었더라면 악플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악플을 보면면서도 무심코 넘기지 않고 선플을 다는 센스가 더욱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설

선플을 다는 원승이

이제 곧 2016년 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승이의 해가 된다. 십이간지중에서 원승이라는 특히 재주가 많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승이는 시가(詩歌)에서는 '고독', '설화와 가면극에서는 '괴 흉내 재주꾼' 등을 상징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지극한 모정을 의미하는 '단장(斷腸)' 고사가 원승이에서 유래한 만큼 원승이의 모성애는 강하다.

게다가 붉은 원승이의 헤인 병신년은 붉은 색이 삼진하는 화려함, 도전과 호기심에 원승이의 재주를 겸비하는 헤가 되니 풍요와 신비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붉은 색은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하여 병신년은 도약과 중요로움을 기원해볼 수 있겠다.

십이간지 중에 재주가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원승이다.

그러나 그 재주 인들 그냥 주어졌을까 '1만시간의 법칙'처럼 남들하고 남들 놀 시간에 연마했기 가능했을 것이다.

올 한해를 슬프게 한 사건 중의 하나는 바로 얼마 전 국민을 분노로 빼뜨린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풍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